

## 頌壽辭

화창한 봄날입니다. 지금부터 60해전 오늘처럼 화창한 날에 우렁찬 울음과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徐元宇 博士의 오늘의 모습을 대하며 頌壽辭를 쓰고 있으려니 새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것은 徐博士의 오늘의 모습이 나이에 비하여 젊고 活力이 넘치는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徐博士의 탁월하신 學問的 業績과 高邁한 人品에 놀려 그런가 싶습니다.

徐博士께서는 일찍이 嶺東의 名門 浦項中을 나오시고 서울法大로, 그리고 美國 中北部의 미네소타大學校에 유학한 후 서울대에 新設되는 行政大學院의 教授로써 社會生活을 시작하셨습니다. 그후 서울大學校의 改編과 함께 母校인 法科大學의 公法教授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계시니 엘리트 人生인 셈이지요.

徐博士께서 서울大學校教授로써 學問적으로 著名하신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거니와 天性이 매우 부지런하시고 봉사심도 왕성하셔서 學會의 活動은 물론이고 社會各分野에서도 열성적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徐博士께서는 일찍이 韓國環境法學會長과 韓國公法學會長을 歷任하시고 현재는 兩學會의 고문으로 추대되어 後輩들에 대한 外助를 계속하시고 계시며, 그 외에도 韓國行政學會, 韓國地方自治學會, 韓國不動產學會 등 여러 學際的 活動에도 진력하시는 한편, 政府側 諮問委員의 資格으로 內務部, 建設部, 總務處, 法制處, 서울特別市 등 거의 全 政府部署에 참여해 새로운 知識과 情報로써 國家와 社會에 봉사하며 貢獻하고 계십니다.

徐博士께서는 國內에서 뿐만 아니라 國外에서도 많은 學術研究와 發表에 분주하십니다. 특히 日本에 관한 한 公法分野에 있어서는 他的 追從을 용서하지 않을 많은 交流를 이루어, 우리의 土地法制, 行政節次法制 등을 그곳에 소개하시고 日本의 訴訟理論 등 많은 새로운 理論을 國內에 도입하시고 著名한 教授들도 초청하여 特別講演을 가짐으로서 學術交流에 이바지하고 계십니다.

이와같이 徐博士께서는 國內外로 바빠 活動하는 가운데도 同僚教授등과도 자주 私席을 만들어 公私間 격려와 協助를 하시는 長兄다운 자상함과 다정함도 갖고 계십니다. 때로 感興이 일면 흘러간 노래로서 情趣를 나타내는 서정풍도 있으시니 봄이 낡으신 봄사나이의 정겨운 品性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신 徐博士께서 60選甲이고 보면 부지런하고 活氣넘치는 님에게도 밀려오는 歲月만은 어찌할 수 없으셨나? 그러나 이제부터 참 人生이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도 보통사람의 2生, 3生만큼이나 많은 研究와 社會奉仕를 하시었고 또한 몇갑절의 成果와 보람을 맺고 계시지 않습니까? 徐博士님! 더욱 年富力強하시어 못다하신 일의 끝을 맺으시고 새로히 시작하는 일은 매사 뜻대로 行通하시어 진주같이 빛나는 人生이 되게 하시고 그런중에도 이따금 옛 同僚를 불러 내어 구성진 한마당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오며 만수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長舌이 妄舌되었사오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1991년 4월 25일

金 伊 烈